



33th
Anniversa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알에서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1983~2016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창립 33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Contents | 목차

제1장 발간사 및 축사

· 발간사	06
· 환영사	07
· 축사	09

제2장 학과의 역사와 활동

· 초대 학과장 회고사	12
· 특수교육과 약사	15
· 역대 특수교육과 교수	22
· 점등인과 한마음 한소리지	24
· 특수교육과 소모임	25

제3장 학번 회고록(1983~2016)

27

제4장 특수교육과 연혁

79

제5장 두손뱅크 장학 사업

85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거름에서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제1장 발간사 및 축사

- 발간사 총동창회장 조동열
- 환영사 특수교육과 학과장 이미숙
29대 학생회장 전의정
- 축 사 총장직무대리 김희수
사범대학장 박달원

33년의 발자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가 어느덧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창립 33주년 행사를 특수교육총동창회장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공주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국립대 특수교육과로서 특수교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간 교수님들의 열정과 더불어 수많은 동문이 교육 현장에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학과의 위상을 드높여 준 덕분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명성이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33년보다 더 많은, 더 값진 성취를 이룰 수 있기 위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고 바쁜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기꺼이 지나온 시대를 회고하는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해주신 모든 동문,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특수교육과 역사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동문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잠시 잊고 지냈던 대학 시절의 꿈과 추억들을 다시 한 번 꺼내 보시고, 함께 흘렸던 땀과 같이 즐겼던 웃음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33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및 동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9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장 **조 동 열**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동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공주대학교를 다시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라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2016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이 시작되고 무더위가 찾아와 새삼 여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가듯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생 1회는 83학번이었으며, 올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16학번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거쳐 오면서 우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도 어느덧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중심에서 항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많은 동문들이 공주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학과장이라는 위치에서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한 앞으로 새롭게 쓰일 특수교육과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더 큰 영광입니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준비한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라는 오늘 하루의 일정 안에 동문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학생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를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꾸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과 설립 33주년을 맞아 특수교육과의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9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학과장 이 미 숙

안녕하세요. 특수교육과 제29대 학생회장 전의정입니다

어느덧 한여름에 접어들어 시절의 무상함을 느끼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복지시설 폭력사건을 통해 저희 재학생들은 예비 특수교사로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그간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선배님들께선 어떻게 지내고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가 어느새 33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이 자리가 선배님들께 지난날을 나누며 추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은 제게 뜻 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전 학생회의 자료집들을 살펴 보며 앞으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옛 사진을 정리하며 재밌기도 하였고, 예전의 특수문헌정보관의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현직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 특수교육과의 깊고도 긴 역사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선배님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손뱅크를 통해 방학이면 해외로 나가 특수교육과 관련한 견문을 넓히고, 새 학기가 되면 학술부실에서 새로운 도서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재학생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특수교육과가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이 더 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의 힘이 더해져 더욱 찬란한 특수교육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기초를 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9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29대 학생회장 전 의 정

공주대학교 총장 축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와 더불어 한해의 절반이 지나는 새로운 7월, 오늘,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라는 척박한 땅에 단비를 내리며 명문 공주대학교의 특수교육과로서 당당한 위상을 굳히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미숙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과에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는 1982년 10월 5일 교육부 대학령에 의거, 중등특수교육 전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아·초등을 포함한 특수교육의 전 학교 급을 아우르는 단일 학부로, 3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00여명의 현직교사를 배출한 명문학과로 우뚝 서게 된 학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점연구소 및 BK21사업의 국가연구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2015년에는 학과평가에서도 전국 사범대학 1위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특수교육과 동문들께서 지난 2011년부터 '두손뱅크'라는 이름으로 학과발전기금을 모금하여 금년 6월 기준 2억원을 돌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보기드문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과 동문과, 학생여러분!

지금 대학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적응하지 못하면 학과의 존립은 물론, 대학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수교육과도 이대로의 만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과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변화하는 새로운 시기에 맞는 역할과 전문성을 찾아 신 교육과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학과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전국 사범대학 중 최고의 특수교육과」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수교육과 33주년을 맞이하여 모처럼 교수님을 모시고 모교를 찾아오신 특수교육과 동문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특수교육과의 단합과 축제의 자리입니다. 다 함께 즐겁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특수교육과 학과장님과 한성희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9일

공주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김희수**

특수교육과 설립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범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인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교육이었으며, 그 역할을 우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이 감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우선 발령제도가 위헌이 되면서 우리 공주사범대학은 생사의 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 사범대학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특수교육과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매년 100여명 안팎의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여 우리 사범대학이 전국 사범대학 중 최다 임용시험 합격자 명성을 얻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학과의 훌륭한 성과로 우리 특수교육과는 2015년 학과평가에서도 1등을 하는 등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사범대학 선도 학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과의 놀라운 성과로 우리 사범대학은 2003년, 2010년, 2015년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국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20여명의 교원을 학교의 교육현장으로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온몸을 던지신 교수님들의 열정과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의 훌륭한 학과로 특수교육과가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과동창회를 통한 학과발전기금 모금과 후배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미숙 학과장님과 한성희 교수님을 비롯한 특수교육과 교수님들과 재학생,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립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수교육과의 놀라운 발전과 세계를 향한 비상을 기원합니다.

20116년 7월 9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박 달 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제2장 학과의 역사와 활동

- 초대 학과장 회고사
- 특수교육과 역사
- 역대 특수교육과 교수
- 점등인과 한마음 한소리지
- 특수교육과 소모임

우리의 만남은 필연

전) 특수교육과 교수(초대 학과장) **김영환**

33년 전(1982년 3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처음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33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며 반갑게 맞이한 것도 이때다. 이때부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그러기에 내가 재직한 8년간 그 후 근 20년간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공주대 특수교육과의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때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아련한 생각들이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글로 표현하고 싶어지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립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었으니 국가로 보나 특수교육계를 봐서도 자랑거리요, 이곳에 근무하게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실습 정신지체학교 유치(공주정명학교)

부임 결정이 되고 생각해보니(그땠 아직 신원조회가 떨어지지 않아, 교육부에 적을 두고 공주대에서는 시간 강사로 3일은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3일은 공주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장차 재학생들의 교육 실습학교가 문제였다.

이때만 해도 충청남도(대전과 분리 전)에 공립특수학교가 대전맹학교뿐이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행정과장에게 전화로 공립정신지체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서둘러 달라고 했더니 어디에 설립할까요? 하길래 우리나라 교육 도시로 이름난 공주에 설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학교 설립에 대한 모든 경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뒤로 공주정명학교가 우리 특수교육과의 자매학교처럼 스스럼없이 우리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특수교육 양성대학 교육과정 편성

또 학과 운영에 시급한 것은 교육과정이었다. 교육부에 재직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대학 당국의 문제이며 내 소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 댈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했으나 각 대학의 여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방치해 있었다.

제일 문제점은 교육법전에 의하면 중등교사자격증에는 전공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

는데 지금까지는 표시과목도 없이 단지 특수교육이란 과목만 표기되어 엄밀히 규정하면 중등학교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 특수학교 자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학교 중등부에는 임용될 수 없었다. (중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란 과목이 없음)

그래서 각 특수교사양성대학 교수들을(이화여대, 단국대, 대구대 등) 본교에 오시게 하여 협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본 교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교원 자격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고 과목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자의에 따라 부전공 이수 과목으로 했다(21학점). 즉 우리대학은 다행히 26개 학과(우리 과 제외하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수학교중등교사 양성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타 대학은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특수학교 중등교과를 모두 이수할 수 없었다.)

특수교육관 신축

학과운영에 세 번째 문제점은 학과 전용 강의동이 없어 교수들은 학기가 바뀔 때마다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등 남의 과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강의하기가 바빴고 학생들은 강의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했다. 또 교수들의 연구실도 서로 멀리 각각 떨어져있어 교수협의회를 한번 열려면 서로 모이기가 힘들어 했다. 이런 애로점을 학교당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시설국(지금은 없어짐)에 과장을 만나 애로점을 털어놓았더니 당장 설치 계획서를 올려 보내라고 해서 학장(그때는 단과대학이라 학장이 학교 책임자임, 박재규 학장)에게 보고하니 학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여 지금의 특수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내부구조는 주로 교수연구실, 장애학과별 실험 실습실, 특히 지하실에는 교육자료 제작실(Hard-Ware) 등을 갖추게 되어 명실 공히 국립특수교육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비록 늦게 설립된 학과이지만 앞서 설립된 다른 대학보다 여러모로 앞장서게 되었다. 매우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필자가 처음 특수교육과에 부임하면서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한 일이었다.

공주대학 특수교육과 홍보

공주대 특수교육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선 공주대 교수들이나(타 학과) 학생들에게 먼저 특수교육이란 어떤 교육인지 홍보해야 되겠다고(그때만 해도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 또한 전문한 때였다.) 생각하고 공주대 논문집 등에 투고하거나 각종교수 모임(교내 교수합창단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공주대 논문집에 게재된

것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1983년 훈련 가능 정신지체아의 언어발달의 특성, 1984년 새로운 장애자관의 정립을 위한 철학적 접근, 1985년 신변처리에 미치는 operent 기법의 효과(최중도정신지체아 중심으로), 1987년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사회 요구조사 등이었다. 그 외 각 시도 교육청 장학지도 요청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리 특수교육과를 적극 홍보하고 우리 졸업생들이 잘 취업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홍보하였다. 주로 장학지도와 연구학교지도 등에 참석한 시·도 교육청으로는 충청북도(4개년), 제주도, 전라남도(광주 포함 4개년), 경기도, 경상남도 등이었으며 주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장학관(장학사)이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이나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없는 시·도에 장학지도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수교육과의 시작과 현재의 만남
(김영환 특수교육과 초대교수님과 15학번 제자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인데도 33년 전에 우리 과를 창설하신 박재규 학장님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는 한편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어 학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던 황도순 교수님, 한성희 교수님, 김삼섭 교수님, 광승철 교수님들과 그때 우리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26개 학과 과장님과 교수님들, 교무과장이춘우 교수(퇴임하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수교육과 재직 8년(만7년)과 과를 떠나온 지 27년간

스승의 날(5월15일)을 전후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못난 이 사람을 스승이라고 찾아준 졸업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건데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분들(주로 교수님)과 졸업생들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깊이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수교육학과 역사

태동기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설립

1948



1960년대의 공주사범대학 교사 전경

1. 공주사범대학 설립 (1948)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1948년 7월 30일 당시 미군정청 문교부로부터 공주사범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탄생되었다. 설립 당시의 학과는 국어과, 수학과, 가정과 3개 학과였고, 1948년 12월 1일 개강식이 거

행되었다. 공주사범대학은 설립 당시에는 2년제 도립대학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문교당국이 해방 이후 대학 과잉 설립, 교수 자격자 희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립으로 인가하여 달라는 충남 도지사의 건의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교 시설 등은 해방 전에 설립되었던 공주여자사범학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초대 학장도 당시 공주여자사범학교의 교장이 겸직하였다.

공주사범대학이 탄생하였던 터는 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자리로,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충청관찰사가 있었고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 되기까지 충남도청사가 자리했던 곳이다. 당시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된지 14년이 지난 뒤였다. 당연히 대전 지역의 인사들은 충남도내의 대학 설치는 도청소재지인 대전에 두어야지 공주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항변하였으나, 공주여자사범학교만한 시설을 갖춘 건물을 제공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거액을 적립하라는 도청 측의 제안에 주저않고 말했다. 사실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대전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2년제 도립 사범대학으로 출발한 공주사범대학은 1950년 6월 21일에 국립으로 이관되었고, 1954년 4월 1일에는 4년제 국립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83

2.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탄생(1983)

1982년 당시에는 국립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양질의 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1982년 10월 5일에 문교부 대학령에 의거 졸업정원 30

제2장
본
행
의
역
사
와
학
과

명, 입학정원 39명의 특수교육과 신설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김영환 교수님이 특수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회 입학생 39명(남자 12, 여자 27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특수교육과 전용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공수업은 주로 그 당시 '돌집' 혹은 '나 강의실' 이라고 불렸던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돌집' 뒤 계단에서 김영환 전 교수님과 83학번 39번까지 순서대로 앉아 찍은 사진

성장기 : 학제 완성과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개설(1984-1989)

1984

~

1989

1. 학제 완성과 1회 졸업생 배출

1984년에는 2회 입학생 39명, 1985년에는 3회 입학생 34명, 1986년에는 4회 입학생 32명이 입학하여 1986년에 4년 학제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2월에는 35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1988년 6회 입학생부터는 졸업정원제에서 입학정원제로 전환되어 30명이 입학하였으며, 1989년에는 입학정원이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어 7회 입학생의 입학하게 되었다.



특수교육과 제 1회 졸업생 83학번 동문

2.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개설

1986년 11월에는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전공이 신설되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재교육과 연구 기능을 확충하기에 이르렀다.

3. 교수 부임과 이임

학부와 교육대학원 학제를 점차 완성하게 됨에 따라 교수님을 지속적으로 초빙하게 되었다. 1984년 2월에는 조선덕 교수님, 1985년 3월에는 황도순 교수님, 1985년 9월에는 김삼섭 교수님, 1988년에는 한성희 교수님이 부임하였다. 김영환 교수님은 국립한국선진학교가 개교되면서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안타깝게도 특수교육과를 떠나시게 되었다.



특수문헌정보관

4. 특수문헌정보관으로 이전

전환기 : 시련과 도전(1990-1994)

1990

~

1994

1. 교원임용고사 제도 실시

국립사범대학생의 의무발령제도가 임용시험제도로 변경되면서 사범대학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초 교원임용시험은 1990년 12월에 실시되었다. 당시 많은 학생이 교원임용고사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교원임용고사 실시를 막을 수는 없었다.



특수교육과 임용고사 반대 시위 출정 풍물패



특수교육과 임용고사 반대 단식농성

2. 특수교육과 초등전공 신설

1994년 3월에 특수교육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과 학부 과정에 초등특수교육전공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우리 대학 특수교육과는 중등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학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거나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교수 부임과 이임

1991년 9월에 백은희 교수님, 1994년 3월에 박승철 교수님이 부임하였다. 조선덕 교수님이 1992년 2월에 퇴임하였다.

성숙기 : 일반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 신설(1995-2006)

1995

~

2006

1.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신설

1995년 10월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신설 인가를 받아 교육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대학 특수교육과는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한국 특수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 특수교육과 유아전공 신설

1996년 3월에는 학부 모집인원이 20명 증원되어 60명이 되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전공이 신설되었다.

3. 대용부속특수학교 지정운영

학부 학생의 특수교육 실무 능력과 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공주정명학교, 청주혜원학교, 대전해광학교를 대용부속특수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 학생은 강의실에서 공부한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접목하는 기회를 더 가지게 되었다.

4. 교육부 지정 중등특수교사 1급자격연수기관 운영

1997년에 교육부 지정 중등특수교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기관으로 확정되어 매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가 자격 승급을 위해 참여하는 자격연수로, 특수교육과는 매년 특수교사 1급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특수교육대학원 설립 인가

1998년 11월 특수교육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양질의 특수교사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수교육대학원에서는 특수교사 재교육 기능을 위하여 1999년부터 입학정원 60명의 특수교육대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대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으로 김용철 교수님이 취임하였으며, 2001년에는 2대 특수교육대학원 원장으로 김삼섭 교수님이 취임하였다.

6. 교수 부임과 이임

1997년 9월에는 전병운 교수님, 1999년 3월에는 조광순 교수님이 부임하였다. 조광순 교수님은 2005년 8월에 미국 사우스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South Florida) 아동가족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7. 특수교육연구소 중점지원연구소 선정

2001년 9월에 특수교육연구소는 '특수교육필요아동 중재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웹기반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중점지원연구소로 지정되었다.

도약기 : BK21 사업과 두손뱅크(2006-현재)

2006
~
현재

1. BK21 사업 선정

2006년 9월에 특수교육과는 BK21 특수교육전문가 인력양성사업팀에 선정되어 국



후쿠오카교육대학 및 규슈대학과의 학술 및 인력 양성 교류

가 지정 연구사업인 BK(Brain Korea)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다. BK 사업은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석학 초빙 학술 워크숍 개최와 해외학술대회 발표, 해외 대학 교류, 대학원생 양성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BK 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우리 학과는 2013년에 BK21 Plus 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현재까지 BK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재학 동문을 위한 사업 두손뱅크

과거 동문 가족의 투병을 위해 온 동문이 힘을 모았던 정신과, 동문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하였던 자조조직 '두손회'의 형태를 이어서 2011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재창립과 함께 '두손뱅크'가 실시되었다. 약 300여명의 동문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금해온 결과 2016년 상반기 기준 누적금액이 2억을 돌파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업의 범위를 늘려 현재 무이자 학자금 대출, 교수추천 장학금, 글로벌 특수교육 인재양성 사업, 특수교사 임용캠프 지원(전공도서, 수험서, 임용특강, 문구류 등), 학부 학생회 행사 및 활동 지원(학술부 전공도서관 도서기증, 학생회 활동 지원금 지급), 학과 발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 재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후배사랑 전공도서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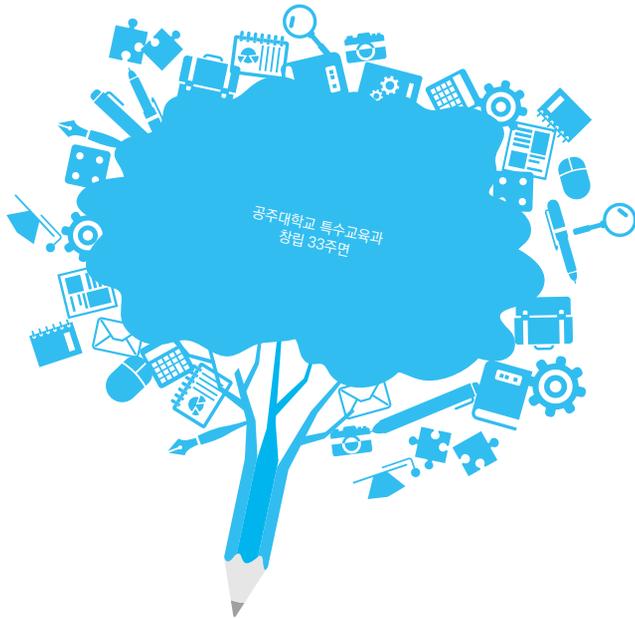
3. 교수 부임과 퇴임

2007년 9월에는 노진아 교수님, 2009년 3월에는 임경원 교수님, 2011년 3월에는 이미숙 교수님, 2014년 3월에는 최상배 교수님, 2015년 9월에는 정선화 교수님, 2016년 3월에는 서효정 교수님이 우리 학과 교수님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8월에는 황도순 교수님이, 2015년 2월에는 김삼섭 교수님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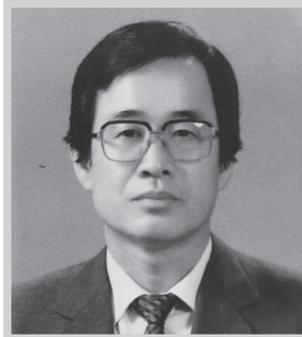
2015년 김영환, 김삼섭 교수님과 재직 교수님 모임

제2장
대학의 역사와
현황



역대 특수교육과 교수

1) 퇴임교수



김영환 교수님



조선덕 교수님



황도순 교수님



김삼섭 교수님



조광순 교수님

2) 현직교수



한성희 교수님



백은희 교수님



곽승철 교수님



전병운 교수님



노진아 교수님



임경원 교수님



이미숙 교수님



최상배 교수님



정선화 교수님



서효정 교수님



특수교육과 문집 소개

점등인과 한마음 한소리지

마음을 울리는 두드림 소통하는 특교
제 28대 학생회

발행인 : 편집부 편집인 : 편집부 발행사일 : 2015년 2월

《점등인》

< 제 38 호 >

201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을 울리는 두드림
소통하는 특교
제 28대 학생회

너와 나를 잇는 특별한 다리
우리 사이 특교
제 29대 학생회

발행인 : 편집부 편집인 : 편집부 발행일 : 2016년 2월

《점등인》

< 제 39 호 >



너와 나를 잇는 특별한 다리
우리 사이 특교
제 29대 학생회

한마음 한소리지 5월호

한마음 한소리지



♥ 5 월 호 ♥

발행인 : 편집부 / 발행일자 : 2016년 5월 16일

한마음 한소리지

한마음 한소리지



♥ 6 월 호 ♥

발행인 : 편집부 / 발행일자 : 2016년 6월 8일

특수교육과 소모임

손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아장아장

아장아장은 아름다운 장애 이해, 아름다운 장애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모임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글자인 점자를 배우게 됩니다. 배운 점자로 특수교육과의 행사인 장애인의 날과 수시면접에서 점자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점자를 찍어주는 활동을 통해서 장애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낄 타과 학우님들이나 수험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엔 학생회의 기초사업과 연계한 특별한 활동이 16학번 학우님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자나 시각장애에 관심이 잇는 16학번 학우님들을 아장아장이 기다립니다 ♥



-2016년도 아장아장 장 김재철-



홍넙치는 우리가락 소리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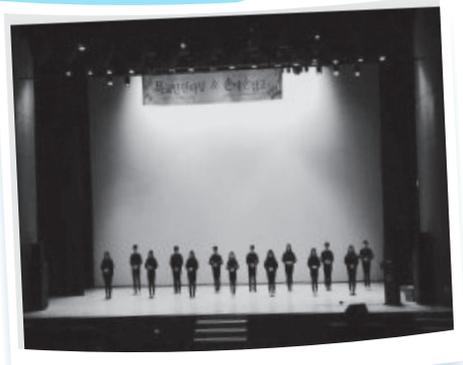
소리풍은 특교 학우 분들이 팽가리, 장구, 북, 징 네 가지의 악기를 연주하며 어우러지는 풍물놀이패로 매 해 1학기 총 MT와 2학기 특교인 한마당에서 시작을 알리는 공연을 가집니다. 사물놀이가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 소리풍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고유 농악기를 배워보고 함께 장단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동기들끼리 친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장애인 평생교육증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사물놀이이라는 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16학우 분들 !! 소리

풍과 함께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생활의 시작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_^*

제2장
홍넙치는 우리가락
학과의 역사와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아랫목

아랫목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수화로 표현하여 반전식, 장애인 의 날, 특교인 한마당과 같은 특수교육과의 행사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소모임입니다. 올해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16학번 학우님들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랫목에서는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학우님들과 돈독해질 수 있고, 공연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뿌듯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화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랫목에서는 같이 아름다운 꽃수화를 만들어 나갈 16학번 학우님들을 기다립니다.



-2016년도 아랫목 장 김나영-

우리들의 특별한 모임, 임연모

임연모는 임상동작 연수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임상동작법이란 동작을 과제로 하여 뇌성마비 등의 지체부자유, 자폐증, 과잉행동 등 여러 가지 상태의 행동개선을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의 총칭을 말합니다. 대상의 주체적 활동성과를 이끌어내며 그로 인해 심리적 치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구분됩니다. 매주 모여서 임상동작법의 기본자세들을 배우고 월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임상동작 캠프를 개최하여 노력에 따라 민간자격증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소모임 중에 유일하게 장애 학생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임연모! 특수교육인으로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임연모로 오세요 ^^ 2016년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립니다.

-2016년도 임연모 장 최민수-

너와 나의 연결고리 G.B.C

반갑습니다~ 16학번 새내기 학우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특수교육과의 소모임 중 하나인 GBC는 축구, 농구, 족구, 야구 등의 주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학우분들은 자동가입이 되며 `여학우분들은 가입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GBC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GBC 장 김용석-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거름에서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제3장
학번 회고록
(198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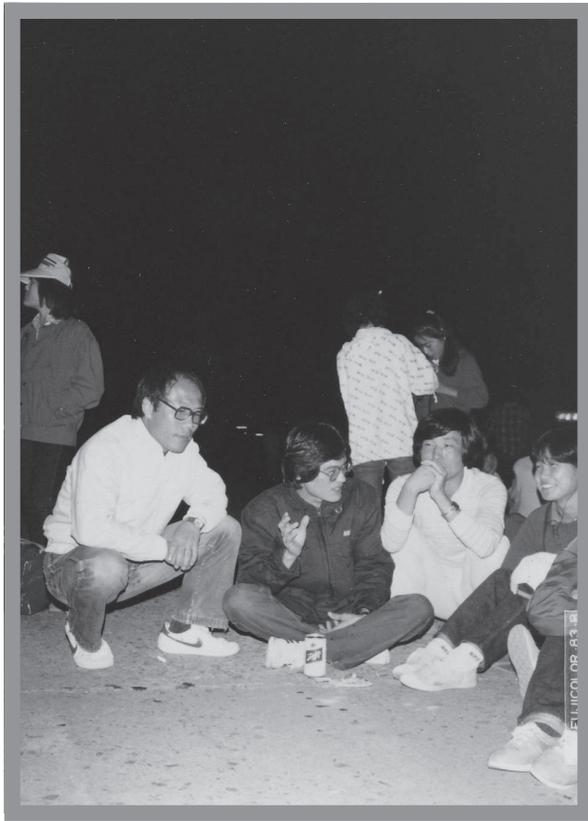




33년의 추억

83학번 김승래 동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3주년을 축하합니다”.



83년 8월 김삼섭교수님, 친구 읍, 정명옥

사대생들의 아지트였다)에서 읍과 나는 동갑임을 알았고 다음 날부터는 나도 덩달아 삼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읍 친구를 추억하며 졸업 30년에는 꼭 공주에서 함께하자던 약속을 저버린 친구가 그립습니다).

1983년 3월 2일 체육관 강당에서 과 별로 줄을 서서 우리 1회 동기들은 공주사대 특수교육과 제1회 입학식을 마치고 돌집 2층 어느 강의실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지요. 김영환교수님 한 분과 그 당시 조교였던 김삼섭교수님 그리고 39명(여자27명, 남자12명)의 입학생들.... 1번부터 나와 간단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고 7번인 김읍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동기 여학생들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냥 삼촌이라고들 하세요. 그 다음 난 9번인데 간단한 내 소개를 하여도 아무도 나를 뭐라 부르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 날 저녁 학교정문 앞 개미집(그 당시에는 학교 정문 앞에 막걸리집 몇 개, 그리고 상록원(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지만)이

라는 산속의 쉼터가 유일한



84년 1,2회 남자 단합대회 개미집 막걸리(안주는 달랑 김치 하나)

축제기간 중 교내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특수교육과 39명과 두 분 선생님은 전원이 하나로 뭉쳐 경기와 응원에 임하였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1학년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선수로 뛰어야 했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예선 1회전에 탈락했지만 축제기간 중 우리 과의 구호였던 “더불어 사는 삶”은 공주사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비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삶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더불어 사는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완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걸 보면... 그래도 참 좋아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있다.

그 당시 국립사범대학은 임용고시제도가 아니라 의무 발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회장이었던 1985년 축제기간중의 과행사로 수화연극과 수화합창을 하기로 하였다. 처음 하는 연극이었고 더욱이 수화로 연극을 해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어컨도 없던 시절 더위를 이겨내며 여름 방학 내내 연습을 했고(출연 인원과 스텝진까지 수십명), 연극과 합창에 출연하지 않는 학생들은 조를 편성하여 번갈아 가며 각자의 자취집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학교에 가지고 오고, 연습하는 친구들이 빈 강의실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름날 음식준비에 힘들었던 것도 잊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가끔 저녁을 사주셨고 막걸리 한 사발과 더불어 연습으로 고된 우리들 심신의 피로는 말끔하게 풀어질 수 있었다. “사돈의 차”라는 수화연극은 성황리에 2회 공연을 마치고 대전맹학교 학생들의 초청공연과 수화합창을 결들인 제1회 특수교육인의 밤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뜻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다. (이번 33주년 기념행사에서 그 당시의 팸플렛과 비디오 영상으로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매학기 1~2회 정도 과의 단합을 위한 행사로 속리산, 금오산 등 참 많은 곳을 당일이나 1박 2일로 다녀오기도 했다. 대학 4학년 때의 졸업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이다. 목포에서 7시간의 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해서 3박 4일 동안 아름다운 제주의 향기에 취해 우리 모두는 마치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을 하였다.

제주를 떠나기 하루 전 우리는 한라산을 올라갔다. 바람과 비가 내리는 짓궂은 날씨에도 우리는 전원이 서로 도와가며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4월이었는데도 천이삼백 미터 고지에는 눈이 녹지 않아 산을 오르기 전에 준비해간 우의를 갈고 눈썰매를 탔는데, 때로는 앞서사람의 허리를 부여잡고 기차처럼 타고 내려오다 앞서사람이 옆으로 구르면 모두가 동시에 눈발에 뒹굴기도 하였다. 아마 김영환 교수님께서 제일 재미있어 하셨고 제일 많이 눈썰매를 타셨을 것이다.



86년 4월 제주도 졸업여행

지금 돌이켜 본 것은 대학생할 4년 동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둔 그 많은 추억들은 내년 졸업 30주년 때 1회 동기들을 만나게 되면 다 풀어 놓아볼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 1회 동기들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발령을 받아 각자 떠나게 되었다.

졸업 후 24년 동안 동창회장으로 있으면서 1995년 8월에 김영환 교수님의 회갑기념 논총 증정식을 동창회 주관으로 유성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이 10회도 배출되지 않았지만 모든 졸업생들이 공주사대 특수교육과라는 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문 회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했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된 우리 동문들은 자신의 일인 것 처럼 두 번이나 십시일반 도움의 정성을 보여 주었다. 1999년 8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창회주

관으로 김영환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문집 증정 및 정년퇴임식도 모든 동문회원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다.

2003년 8월 11일 특수교육과 20주년기념행사 역시 앞에서 준비하는 동문 뒤에서 밀어주는 동문들, 학생회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모든 행사는 우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동문들이 참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김영환 교수님께서 한국선진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1990년부터 수도권에 근무하는 졸업생들(10회 정도까지)을 주축으로 5월 스승의 날(주로 평일저녁)에는 식사를 겸한 사은의 시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 왔는데 그것이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간다(이 사은회 모임에는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1회 졸업하신 이석진 박사님(전 한국경진학교 교장)께서도 꼭 참석하신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국에 있는 졸업생들이 모일 수 있게 5월 14일(토요일) 일산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였다. 꼭 참석한다던 동문들 중 가정사와 교장연수가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팔순이 넘으신 교수님께서 제일 즐거워하셔서 감사드린다. 항상 건강하셔서 백세 아니 그 이상도 제자들과 매년 만나시길 빌어 본다.

이제 특수교육 동창회가 특수교육을 하는 모든 공주대학인들의 모임이고 1,2대 동창회가 세워 놓은 기틀을 바탕으로 3대...4대... 계속 발전하는 특수교육 동창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특수교육과 2회(84학번) 전설

84학번 김성은 동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스승님! 보고 싶다. 친구야!"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수교육과 84학번은 역사 속 전설이다. 1984년~~ 한 세대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전설 속 친구들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덧 50대의 장년의 모습으로 특수교육현장을 지키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84학번 친구들의 전설, 84학번은 특수교육과 전설입니다.

우리 84학번들이 함께 한 공간, 추억이 있는 그리운 이름들을 불러보고 싶다. 금강, 백사장, 금강다리, 공산성, 곰나루, 상록원, 개미집, 책창, 매산동, 청벽, 어부집, 오래된 느티나무, 시목동, 한적골, 왕촌, 금오산, 한라산, 원산도, 제주도... 지금은 사진 속 모습들이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 그 이름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그리웁습니다. 풋풋한 젊음과 끈끈한 정으로 졸업정원제라는 몹쓸 제도와 싸우고, 성장통과 시대적 아픔을 온몸으로 떠안고 어깨동무를 해가며, 최루탄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던 젊은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

낮익은 이름을 불러 봅니다. 영원한 1번 강길웅, 김미숙, 김성은, 김을집, 김정란, 김정화, 김종임, 김진기, 노보영, 박미정, 박정숙, 소홍님, 서병국, 서인숙, 신순덕, 류희숙, 윤혜순, 이명숙, 이용애, 이은자, 이점자, 이정아, 이창희, 임경희, 조동열, 전난희, 정승욱, 최종숙, 최혁, 한애자, 홍성희, 송병문, 최태수, 정일용, 성민기, 최학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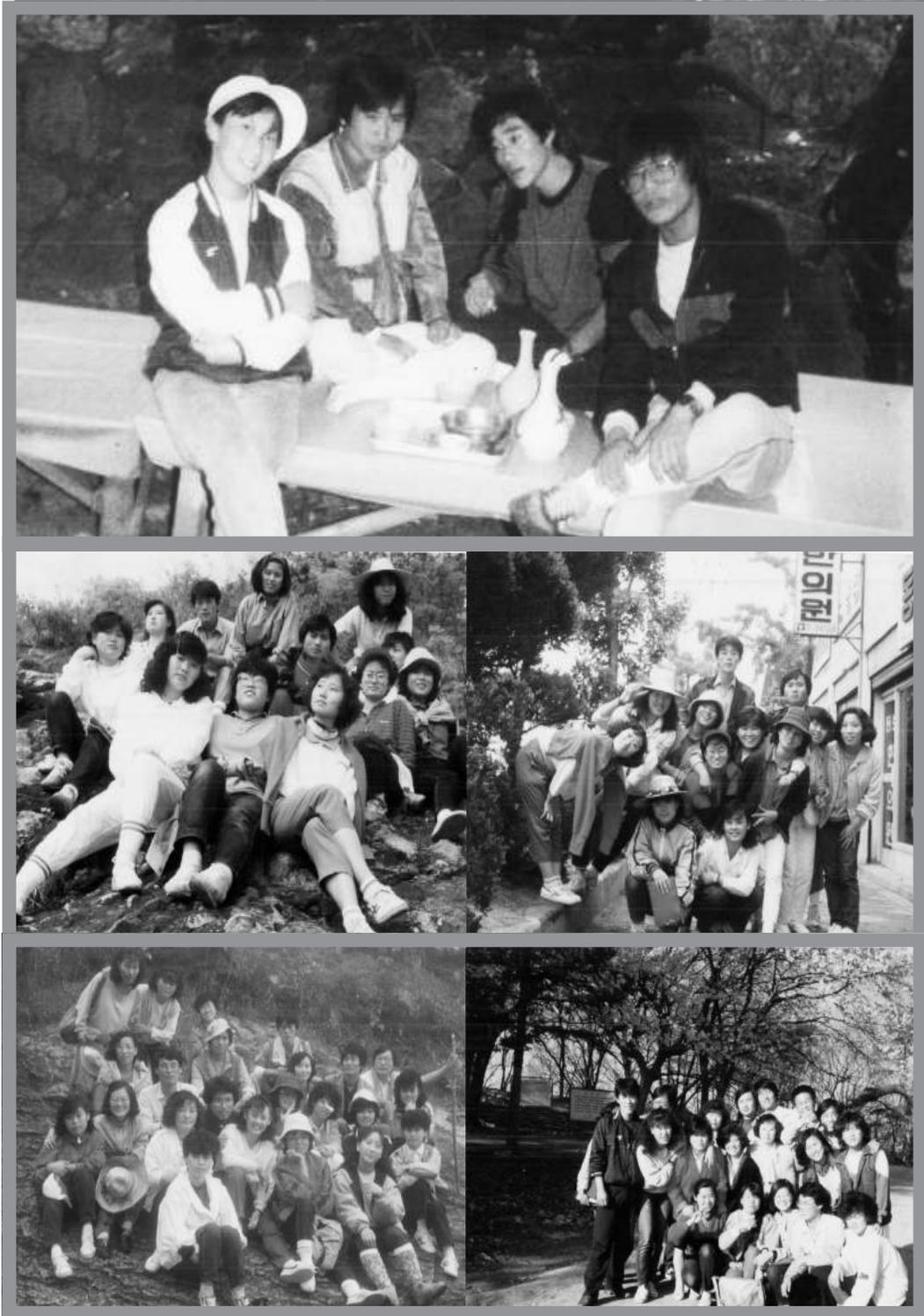
아직도 은사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조선덕 교수님, 황도순 교수님, 김삼섭 교수님, 한성희 교수님, 곽승철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 반갑게 웃으며 손 흔들며 맞아 줄 것 같은 친구들과 은사님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만날 수 없는 은사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스승님
보고 싶다. 친구야

잊지 못할 함께한 추억.. 하고 싶은 이야기들...
33주년 기념행사에 다 와서 한 보따리 풀어 놓게나!!!







추억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85학번 김중무 동문 (한국선진학교 교감)

오토충충(烏兔怱怱)이란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와 토끼가 무척 바쁘다는 뜻인데, 세월의 흐름이 빠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엔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머리는 희어지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보이는 것이 예전같이 많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 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들을 아쉬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남들처럼 앞만 바라보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지나간 세월과 희미해져가는 추억들에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이 더욱 그리워지고,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80년대 후반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근처에 박사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때 그곳에는 자취생들이 모여 사는 낭만이 깃든 운치 있는 동네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박사골에서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자취집에는 인심이 좋은 주인아주머니가 마당에 케일을 많이 심어 놓아 반찬으로 자주 뜯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후의 밥, 절인의 찬'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고추장 하나놓고 케일을 찍어먹었던 험겨웠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근처에 있는 공주교도소 담벼락 철조망을 넘어 수감자들의 힘찬 아침구호가 아침잠을 깨우곤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아침에 대학 후문 쪽 논둑길을 걸어 학교에 갈라치면 최루탄 가스 냄새가 심해서 기침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걷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새로 지은 도서관 자리가 그 당시에는 큰 잔디밭이었는데 학교 수업거부 찬반 문제로 학과생 전체가 토론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선덕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봄이 오면 박물관 앞 목련꽃 나무 옆에서 한 손에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련나무 가지에 예쁘게 피어있는 연노란 꽃 한 송이를 어루만지면서 마치 어린소녀가 된 듯이 가곡 '사월의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러주곤 하셨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른 봄 목련꽃을 볼 때마다 교수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벚꽃이 활짝 핀 공산성에서 야외수업 했던 기억이 있고, 금강변 모래밭에서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뛰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비가 올 듯 날씨가 흐려지면 으레 강변 뚝방 길에는 대학생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며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몰랐었지만 대학생들의 '낭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후배들은 임용시험이나 취업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주 치열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으로 민주화의 꿈틀거림이 있었고, 학생들의 뜨거운 외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수업거부에 대한 교수님과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임용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후배들에게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낭만적인 대학생生活を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떠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대학생生活を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85학번 동기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86학번 회고록 자문

86학번 하선인 동문

나의 지난 공주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대학시절..... 다들 드럽게 못살았다. 공부는 좀 한다 소리 듣고 온 애들이 많았다. 대학교라고 왔더니 주변이 온통 논, 밭이고 골목에 갑자기 소가 튀어나오고 그랬다. 자취집 방 값이 한 달에 썬 건 2만원, 고급은 4만원이었는데 내가 아는 애들 중 4만원 방에 사는 애는 없었던 것 같다. 대학생 낭만을 즐긴다고 막걸리와 새우깡의 콜라보를 즐기며 촌티를 키우던 중 데모가 터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백골단 오빠들의 썩소를 보니 식은 땀이 났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퍽 쉬웠을 것이다. 서울 변화가에서 얼이 빠져서 무조건 뛰었다. 나중엔 아무도 안쫓아오는데도 계속 뛰었다. 그날 밤 신민당사에 모여야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안갔다. 그래도 타 대학친구들한테는 썬 척하며 서울 데모 얘기를 하곤 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 지내며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뀌었다. 나는 불의를 보고 잘 참는 교사가 되었다. 왜냐면 글썸..... 학교에도 여러 종류의 백골단이 있었다. 요즘의 젊은 후배들은 백골단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 시절 우리는 그러고 뛰었는데 우리 후배들은 뭐에 쫓기기에 이렇게 더 힘든 것인지..... 진정 내가 그때 제대로 뛰었어야 했다.

우리 후배들은 진정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살고 좋은 시절을 만났으면 좋겠다.





88 꿈나무, 1988학번들을 소개합니다!

88학번 남영준 동문

88 꿈나무, 우리 88학번이 입학하던 해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여서 우리 학번에게는 늘 '꿈나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88 올림픽 개막식 때에 굴렁쇠를 굴렸던 여덟살 소년이 이제는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우리 88학번도 이제는 꿈나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다들 나이를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만은 꿈을 먹고 사는 꿈나무들이랍니다. 밤기차를 타고 구미역으로 가서 새벽에 금오산을 올랐던 첫 학년 MT, 빨치산의 행군을 기억나게 했던 3학년 가을의 지리산 MT, 우리 88학번들이 함께 했던 순간들의 기억들이 사진들을 보니 아련한 추억으로 되살아납니다.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라는 그 당시의 구호처럼 우리 88학번들은 서로를 챙기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었습니다. 사진 속의 옛된 얼굴의 친구들은 이제 는 꿈나무에서 자기 자리에서 한 몫을 거뜬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88꿈나무, 88학번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한다!!!



1988년 3월 특수교육과 전체 MT(계룡산)



1989년 2학기 학년 MT(원산도)



1990년 1학기 학년 MT(대천해수욕장)



1990년 2학기 학년 MT(지리산)



89학번 회고록

어느 익명의 89학번 동문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졸업식에서 보고 아직 보지 못한 동기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어찌 지내왔는지?

23년, 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얼굴들 생각할 겨를도 자주 갖지 못하고
견고 달리고 날며 살아 왔네

첫 발령, 철없던 시간들을 보내다
아이를 낳고, 철들어 좋은 샘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가져보고
그 부담으로 뛰기도 하고 때론 날던 시간도 거쳐 왔겠지?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어야 하나? 또는 평교사로 아이들 곁에 녹아들까?
고민도 잠시 했을 것이고, 녹록치 않은 삶의 짐과 파고들로 아파도 했을
24년, 크게 다르지 않을 시간들을 지나왔을 89들이여

이러나 저러나
잘 살아보고픈 마음이었으나
삶은 그리 수월한 길을 주지 않아 아릿하고 굼직한 아픔 하나씩은 품느라
'돌아보면 험한 세월 지나왔다'고 소회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그윽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24년차'들이 되어 있을 89들이 뭐 그리 바빴을까?
좋은 선생 되느라...? 좋은 부모 되고 또 효도도 하느라 그랬을까?
외로웠던 시간들에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들
이제야 만나자고 불러본다.
보고싶다. 89들이여~~







추억의 90 해방구

90학번 양인숙 동문



90년도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우린 지금 무척이나 바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맡고 해나가고 있다. 보통의 이들은 전국 각지의 특수학교에서 교사를, 어떤 이는 관리자도 또 어떤 이는 가르치고 직업교육의 현장에서 관리자도 ...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절감하며 간간히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90년도에는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해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타향 생활을 굳건히 했음이 '특수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사명과 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 해 즈음 여름날 우리들의 해방구는 90학번의 특수교육에 대해 고민해보는 장소였고 놀이터였고 식당이었고 휴식터였다. 전국특수교육연합회 모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뒤풀이로 3박 4일의 모임을 해방구에서 했다. 무한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그 날의 추억과 90년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삼청교육대'라는 개그소리에도 특수교육에 대해 꾀꿉이 고민했던 한적골, 신관동 등 자취인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에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91학번 모임: 곰나루 사람들

91학번 구본철 동문

1991년은 우리 학번에게 아마도 특별한 년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했던 해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학년 엠티, 월악산, 원산도, 이 낱말들만 말해도 추억이 새록 기억납니다. 이렇게 밝고 기쁜 기억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잔인한 4월이라고 했던가요? 폭력 앞에 우리와 같은 새내기 강경대 학우가 4월26일 정말 희망차게 살고 싶었을 그날 세상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으로 5월에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더 세상을 떠나고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민주적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은 남은 사람들의 영원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원서를 사러 온 날도 최루탄 가스를 맡았는데, 대학 생활이 이렇게 매울 줄이야 우리 학번 친구들은 전국 여러 곳에서 끌고루 왔습니다. 인천, 서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대전, 충청도, 경기도, 부산, 덕분에 여러 말씨, 습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취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집들이를 할 때면 없는 살림에 그 많은 친구들을 먹고 그 좁은 방에 모여서 정을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고맙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2학년 때는 휴학 등으로 헤어질 학우들이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자며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남원역에서 내려서 뱀사골, 화엄사, 구례를 돌아 왔습니다. 지리산은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남학우들은 특별히 군대 가는 친구도 있어서 흥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여행 동안 많이 이야기 하고 웃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우가 군대를 가거나 휴학도 하면서 같은 학년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복학을 하여 만난 친구들의 반가움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같이 들어 왔다는 인연 하나로 마음을 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바쁜 와중에도 곰나루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돕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두 번은 얼굴을 보면서 지내 왔습니다. 5년 전 2011년 5월 14일 입학 2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이 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잠시 우리의 인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교사로, 지역사회 일꾼으로 자신의 사업과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학우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그리고 나와 인연을 맺어져서 정말 고맙다.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언제나 빈다. 안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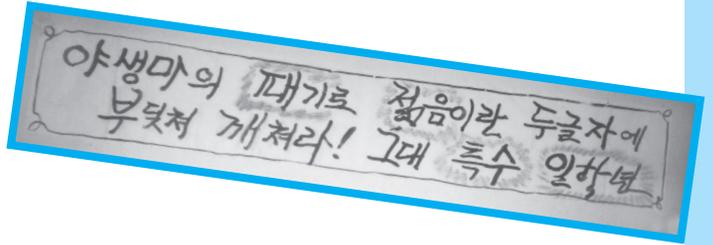
강릉에서 구본철 드림
2016.06.16





92학번 회고록

92학번 김정미 동문



장롱 속 깊은 곳에 넣어둔 빛바랜 사진첩을 정말 오랜만에 아니, 거즘 20년 만에 펼쳐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들어 있는 추억들이 엇그제 일처럼 제 마음에 스쳐갑니다. 지금은 아스팔트가 되어 사라졌지만 민주광장(당시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앞에서 '제1회 손짓패 거리 수화 발표회'를 열었었고,



1992년 10월 14일 '특교인 한마당' 10주년 행사, 그 날은 선배님들과 함께 삼거리 거리연극제를 했었나봅니다. 연극을 발표하고 난 우리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 92학번인 저희들은 십둥이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한결같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고 고왔던 십둥이 학번.

1994년 3월 11일에서 12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했던 동학사에서 '특수교육과 총MT' 후 배들과 선배들과의 1박 2일의 여정은 참으로 특교인임이 자랑스러웠음을 느끼게 해 준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름한 큰방에 삐죽빼죽 들어 누워도 낮설거나 비좁지 않았던 그 시절. 이제는 참으로 그림고 아련한 기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은 이제는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가 되어 너무나 분주한 그리고 책임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그려봅니다.



1992년 『야생마의 패기로 젊음이란 두글자에 부딪쳐 깨쳐라! 그대 특수 일학년』이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손으로 새긴 플래카드를 들고 나선 너무나 당차고 옹골찼던 92학번만의 지리산 MT며, 1993년 8월 26일-8월 28일 1박2일로 떠났던 삼시도로의 MT, 3학년이 되던 1994년 물 선남선녀들의 제주도 졸업여행...



이 모든 것들의 지금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주고, 밑동이 되어주었다는 걸 글을 쓰며 새삼 겸허하게 받아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우리들, 지금의 나를 설 수 있도록 해준 우리들의 특수교육과가 올해로 33년의 긴 세월을 받아드리고 있다니, 어느새 잔잔하게 흘러버린 세월의 무상과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미안함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20년의 긴 교직에서의 '자부심'과 '성실함'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절집 같은 우리들의 특수교육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와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아릅드리 나무가 되어 줄 것을 소망합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93학번 최춘식 동문



93 동기들 보고 싶다! 교수님, 선후배님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자신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 아이들의 선생님이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나
름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이가 된거 같구나.



인사말을 쓰느라 대학 때 사진을 찾다가 93동기들과의 사진보
다 96학번 후배들과의 사진이 더 많은 것을 보며 동기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거리를 남기지 못 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네.

속리산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입학식, 학년별 대면식,
뽕모임, MT, 축제... 벌써 23년이란 시간이 흘러 아련한 기억
들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어 본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 체력장 폐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이 바뀌는 격변의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다. '응답하라 1994, 1997, 1988'은
나오는데 1993은 안 나오는걸까?

40명,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보고, 변화된 얼굴들 직접 보고 싶다~

행정관 앞 너른 잔디밭, 누군가 한 번씩은 빠져봄직한 분수대, 지금도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
기 나누고 있을 특교관 앞 벤치, 주린 배를 채워 준 학교 매점, 집합장소 금강 백사장 ㅋㅋ...

변산반도 채석강으로 학번 MT 갔던 사진과
대전 흑석리 한몸 시설 견학 갔던 사진 찾아
올린다. 조만간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
추억거리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저희 93학번 모두는 공주대학교 특수
교육과 33주년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며, 앞
으로도 더욱 더 돈독하고 발전하는 특수교육
동문회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하라 9438

94학번 김미영 동문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난 조용한 교실에서 어느새 20년 전이 되어버린 그때 우리의 추억들을 되짚어본다. 언제 이리도 시간이 흐른 걸까? 보고 싶은 우리 94학번 동기들...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40명 단출한 숫자로 가족같이 4년을 보낸 친구들이라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연락하며 그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전국으로 흩어진 탓인지, 아님 사는 게 바빠서인지 소식조차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많게 되더구나. 스무 살, 공주의 따뜻한 햇살아래 촌스럽게^^ 여물어져가며 교사의 꿈을 키우던 우리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모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 가정을 꾸려 누군가의 누구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테고 학교에서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중견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느라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나의 마흔의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하나 둘씩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가 되어있을 우리들의 모습이 난 아직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운 동기들, 기억나니? 우리들의 아지트, 특수관 앞에서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0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기억, 수업에 늦으면 교실문을 열어주지 않던 교수님 덕에 밖에서 쓸쓸히 발길을 돌렸던 순간^^, 섬으로 간 mt에서 폭풍우를 만나 이틀간 갇혀 있다 나왔던 일들. 지금 생각해보니 웃음이 배시시 나오는 낭만어린 추억들이 되었구나.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그리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누구에게는 막막함일테고 누군가에게는 도전 일테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편안한 일상일 오늘, 지금, 이 시간~ 소박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을 우리 동기들, 우리가 받았던 공주의 따뜻한 햇살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우리 동기들. 보고 싶다!! 응답하라 9438!!







막강 97학번

97학번 최준기 동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33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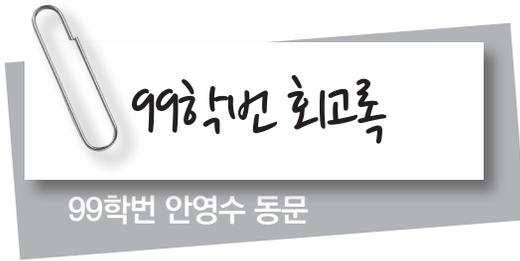
아직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 되었다니 시간의 빠름이 느껴지네요. 나이가 불혹에 가까워지다 보니 기억력도 떨어져 가지만 1997년 공주대 운동장에 여학생 58명 남학생 5명이라는 여성 절대 다수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학번 중에 풍류를 알았고 동기애가 강했던 97학번들 그로 인해 지어졌던 막강 97학번 새내기 때 지도 교수님이신 한성희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의 낭만을 느끼며 열심히 실습도 하고 학업에도 충실했던 멋진 97학번.

선배들을 잘 모시고 후배들을 잘 이끌었던 97학번들이 3학년 집행부를 맡고 있을 때 선후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사범대 체육대회에서 특수교육과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두고두고 길이 남을 역사입니다.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참 자녀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시기라 연락하기 힘들지만 언제 한번 모두 모여 소주 한잔씩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막강 97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라!!"





우선 특수교육과의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료집에 실을 글을 부탁 받았을 때, 사실 참 난감했습니다.

학번 대표라고 하는 일이라곤 연에 한 번 정도 연락처 정비해서 동문회에 보내주는 게 다인데 뭐 쓸 말이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곤 혹시나 싶어 99학번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2011년에 올라온 글이 최신이더군요. 카페지기인 철봉이나 저를 포함한 운영자들 역시 카페에 들어와 본 기억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하더군요. 그래서 자료실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한 장 한 장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입학 당시의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 동기들의 학교생활이 눈앞에 스쳐 지나더군요.

99학번은 참 특별한 학번이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지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98학년도까지 60명이었던 정원이 치료교육으로 인해 80명으로 증원되던 첫 해, 7명의 특별전형을 포함해 87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었죠. 아마 지금도 가장 많은 수 일겁니다. 물론 정원이 늘다보니 학번마다 손에 꼽았던 남학우의 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학번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시각장애 동기들과 함께 입학한 학번이기도 합니다. 복수전공 및 편입 정원이 대폭 늘어나 전공필수 강의를 분반해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학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특수교육 총동문회로 모두 다 같은 특수교육동문이지만 당시만하더라도 서로가 참 많이 힘들게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입학 이튿날부터 3일간 진행했던 2, 3, 4학년 대면식 날마다 어김없이 한차례씩 진행하던 선배에게 반항하며 깡판을 쳤었고, 감히 선배님들께 형, 누나, 언니, 오빠의 금지된 호칭을 거리낌 없이 붙였었지요(흔나도 곳곳하게!), 보수교육의 끝자락에서 뉘지도 모르면서 선배님께 끌려가 집회에도 참여했었지만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학생회 활동에 대한 회의와 이의 연장선에서 전특련 탈퇴라는 고민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배들은 웃을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미달이 속출하던 임용고시 경쟁률이 갑작스레 2:1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부분의 남학우가 졸업해서 임용 합

격한 이후 군대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대학생활이 시작된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입학 당시 4학년이셨던 96학번 선배들께 “꼴통”이라는 대명사로 불리던 학번이기도 했구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동기들은 가지각색의 특색을 지닌 한 데 어우러지기 힘들 것만 같았지만 모두 각자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 내었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동기들아!(형, 누님들 양해 부탁~) 다른 학번들은 가끔? 정기적으로? 모임도 한다던데... 우린 05? 06?년에 한 번 했던가? 바로 앞 98 선배님들이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지금도 하시나요?)이 부러워 친구가 지르고 모여보자고 했었지만 5명?이 다였던 것 같네. 그래도 오랜만에 재미있기는 했었는데...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 지금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은 알고 있으나 가끔은 한 번씩 연락이라도 하고 지냈으면 한다. 1회 선배님들이 조만간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모임 하신다 하더라. 우리도 애들 좀 키우고 20주년 기념 한 번 안할래?



1학년 MT



4년 후 졸업여행



이항번 회고록

01학번 박민휘 동문

두근두근!!! 2001년!!! 입학하기 전 우리는 카페를 개설했고, 카페에서 채팅을 통해 먼저 친해지고.. 벌써 15년 전이지만 나름 스마트한 새내기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입학 후 학년별 대면식, 환영회, 부서 모임, 총애티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게만 느껴졌던 80명의 학우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01학번에서 학생회 간부 학년을 조정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특교과 20주년 행사를 무사히.. 자~~알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20주년 행사 때 오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도 10년 뒤엔 저런 모습을 그려보며 먼 훗날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벌써 33주년을 맞이했다니...!!
 01학번 동기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출산, 육아에 좀 더 매진하면서 한 걸음 쉬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과의 큰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표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01학번 동기님들!!! 잠시 멈췄던 815학번 모임!!!! 곧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항번 아자아자 화이팅!!"





02학번 회고록

02학번 김영교 동문

계슈탈트 이론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전경으로 놓고 그 이외의 것들은 배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유를 갖는 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중요했던 일을 배경으로 보내고,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들, 배경에만 흐릿하게 있어 왔던 것들을 전경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조금씩 어깨가 무거워져가고 있는 요즘 주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기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겠지요.

저는 산소학번이라 불리던 02학번입니다. 거대한 사상적 흐름에 동조하거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미시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시끄러운 뭔가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 행사의 성공여부는 그 행사의 당위성이나 상부(?)의 지시보다 과대표의 인맥과 친화력이 절대적입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과대표를 뽑는 일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대하던 선배들을 보면 다 잘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과대표를 매 학기마다 겨우겨우 정하곤 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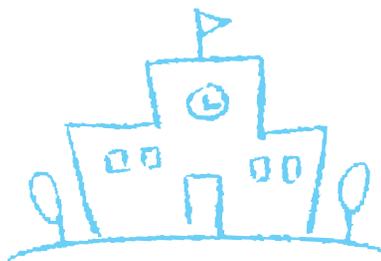
한 사람이 동기들의 대학생활 추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이 어찌면 우리 학번다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자 동기들은 예쁜 동기나 후배를 찾아서 해매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관계로 매일 남자들끼리 게임, 술, 축구, 당구로 거의 대학생활 대부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성한 학번 소개들에 이런 저급한 내용을 쓰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만 솔직하게 쓰자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4학년이 되자 고3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 다들 중도(중앙도서관)로 새벽같이 매일 출근하는 나날이 시작되었고 그 해 동기들 대부분이 임용고사에 합격했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도 중요한 업무나 보고가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움직이고, 동료선생님들과 운동을 하고, 수다 떠는 것이 즐겁고,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선생님보다는 잘 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제게 교사의 길을 열어준 공주사범대 특수교육과에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33주년 축하드립니다.



02학번 MT사진





03학번을 추억하며

익명의 03학번 동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립 33주년이 되었네요. 저는 03학번 아무개입니다.

얼마 전 공주대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후문 앞에 2,3층 건물들이 즐비하더군요. 제 후배들에겐 익숙한 환경이겠지만 제 동기들과 선배님들에겐 놀라운 변화일 것입니다. 2003년 공주대 입학 당시 후문 앞은 드문드문한 단층건물들 뿐이었으니까요. 아마 83학번 선배님들은 더 한적한 환경이었겠지요.

그러나 비록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휘황찬란한 대학가는 아니었지만 우리 특수교육과 건물 앞 잔디밭과 술 한 잔에 안주 하나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03학번에겐 전설처럼 전해지던 황OO 교수님과 잔디밭에서 막걸리 한 잔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부풀었던 것은 저만이 아니었겠지요. 특히 03학번은 참 단결이 잘 되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정말 놀 때는 기가 막히게 일치단결을 잘 했지요. 어두운 밤에 더 활발하던 아웃사이더인 저를 끌어낼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지론 중 하나인 '열심히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동기들입니다. 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일선 학교에서 여러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들을 때마다 '그럼 03학번인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들도 그렇겠지?^^ 비록 아직도 아웃사이더의 성향이 여전하여 소식을 듣기만하고 소식을 전하진 않지만 항상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 특수교육학과의 33주년을 축하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공주대 특수교육과! 공주대 특수교육과 03학번! 그리고 선후배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04학번 회고록

04학번 박선미 동문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걸려온 후배의 전화로 우리 과가 33년을 지내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간은 한참 높은 우리 선배들만 생각하고 나이가 엄청 많겠거니, 엄청 오래된 학과려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과도 한참 고민할 청춘 같은 나이였다. 나보다 한 살 많은 우리 과의 나이가 마치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는 동지 같아서 더 정감 있고 갑자기 애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살아온 특수교육과지만 우리 과도 나처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참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



특교인의 밤

이 들었다. 20대를 보내고 30대 초입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우리들처럼 말이다. 우리 과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느라 바빠서 고이 묻어두고 떠들어보지 못한 04학번 동기들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다. 졸업하고 몇 년은 그냥 방치해둔 04학번 카페에도 들어가 보고 우리 대학 시절엔 최고 인기였던 SNS 싸이월드에도 접속해서 나의 어릴 적, 그리고 내 동기들의 어릴 적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애석하게도 한창일 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동기의 얼굴도 보였고, 졸업 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잊고 지냈던 동기들 얼굴도 보였다. 그리운 마음에 찡하기도 했고, '아 맞다! 이런 친구도 있었지!' 하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까마득히 잊고 지냈나 싶어 헛웃음도 났다. 또 현장에 나와서도 보고 지내던 동기들은 얼굴을 보니 어려도 한참 어렸고 귀엽기도 말도 못하게 귀여워서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졸업 후

에 동기들 모임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못한 대표 같아서 미안함도 커졌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시작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만남, 황토색 새내기티를 입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동기가 되었다. 선배들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는 학년별 대면식, 대면식은 항상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대면식 후에 이어지는 뒤풀이를 생각하면 그만큼 선후배가 끈끈해지는 자리도 없었던 것 같다.

전 특교인이 함께 떠난 총 엠티에는 빅 이벤트로 4학년 선배들의 임용합격을 응원하는 배치기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목청 높여 응원을 해서 선배들에게 예쁨을 받기도 했었다. 그 배치기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총 엠티를 떠올리다보니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다. 내가 특수교육과 회장을 맡았던 06년도에 신입생들 살뜰히 챙겨서 총 엠티를 떠났었다. 1박 2일을 잘 보내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06학번 여학생 한명이 부모님께 SOS를 보내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 너무 놀란 나와 그때 당시 학과장이셨던 황도순 교수님은 교수님 차를 타고 우리가 갔던 엠티 장소에도 가보고 그 여학생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 다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휴대폰의 SOS버튼을 실수로 눌러놓

고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재 파악이 되고 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교수님과 나는 낮부터 짙하게 막걸리 한잔을 마시며 그날의 해프닝을 날려버렸다. 지금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무사히 있어준 우리 후배에게 안부를 전한다.

수업은 빼먹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갔던 엠티는



02학번 선배님들과의 대면식

을 출석 했던 나, 학과 특성상 학번 당 학생수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엠티가 아니면 학기 중에 술 한 번 같이 못 먹어본 동기들도 많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엠티를 진행해준 학기별 과대들에게 참 고마운 대목이다. 엠티만 갔다 오면 새로운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망신살이 뻗치기도 하고, 오해를 풀기도 하고, 수다를 떨다 보니 코드가 잘 맞아서 베스트프렌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후배들은 어떤 엠티 문화를 갖고 있을까? 서른이 넘은 우리지만 기쁨은 동기들과 엠티를 떠나 보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게 된다.

과 학생 수가 사범대 과반수를 차지했던 우리 특수교육과, 학술제 규모 또한 컸고, 반지전달 식이며 총회며 학과 행사 한번 하라고 치면 연구관 강당 대여는 필수였다. 지금은 더 크고 멋진 건물도 많이 생겼다는데, 연구관에서 열렸던 총회, 특교인의 밤, 그때는 참 열정 있게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했었는데,, 그때의 열정이 그리기도 하다.

사회에 나와서 일에 치여, 그저 밥벌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도, 꿈이 뭐였는지, 이렇게 사는 게 끝인지, 제대로 된 생각, 생각다운 생각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몇 년간이었는데.. 잘 정리해 창고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았던 물건처럼 잊고 지냈던 내 대학생활의 회상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과 더불어 큰 물음을 준다.

삶의 대한 목표, 지향점,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살 수 있기를.. 아마 이런 고민은 나와 우리 동기들, 비슷한 시간을 달려온 우리 특수교육과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동안 힘내서 잘 살아온 만큼 우리과도 우리들도 55주년 행사에는 더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추억할 수 있게 더욱더 뜨겁고 열정 있게 살길 바라본다. 사랑하는 우리 04학번 동기들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살길 바란다! 보고 싶다. 동기들아!



05학번 회고록

05학번 김상현 동문



매년 만나는 허물없는 동기고 아직도 만나면 20살 철없는 개구 찢던 친구들 같은데 어느새 누구네 남편 아내, 누구 아빠 엄마 가 되었다는 생각에 문득 거울을 보며 예고~ 쪼그매한 숨을 뱉어본다.

수년전 본의 아니게 바리스타 공부를 하다가 커피의 향기에 이끌려 그 소굴에 발을 드밀었는데, 그곳은 정말 강렬하고도 미묘한 그리고 너무도 복잡한 환락가 같은 곳이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맛보리라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맛을 보았었지.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커피가 다 맛있지는 않더라고. 아프리카산 커피는 너무 시고, 동남아산 커피는 흠냄새가 좀 역하지, 아메리카산 커피는 너무 평범하고. 도대체 별다방 커피의 맛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 해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지만, 또다시 우리향기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본다. 20살 때의 풋내 나는 향기는 어느 샌가 각자가 다른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성숙되고 풍요로운 향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다함께 모여보자 05 파이팅!



06학번, 우리 10주년이다!

06학번 윤기준 동문

2006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1월 카페에서부터 06학번 동기들과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낮밤 할 것 없이 온라인채팅으로 가까워진 우리는 첫 오프라인 모임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진과는 다른 모습에 많이 놀라면서도 어색한 그리고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어느 학번이나 그렇듯 우리 학번 역시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모여 구수한 사투리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대천으로 떠난 첫 동기 MT부터 작은 모니터로 함께한 06년 독일월드컵, 몇 천원 씩 모아 치킨 시켜놓고 박지성의 선발출전을 기대하던 일까지 많은 추억들을 쌓으며 즐거운 신입생 시절을 보냈다. 학과가 나뉘는 2학년 때부터는 전공 공부에 관심을 가지며 나름 대학생다워지기 시작했다. 3,4학년 때는 다들 임용 시험 준비로 많이 바빠져서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덕에 지금 많은 동기들이 교단에서 같은 길을 걷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이란 시간동안 누군가는 귀여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도 하였고, 예쁜 사랑으로 신혼부부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노총각도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풋풋했던 그 모습이 아직 선한데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진다. 자주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자주 못하는 사이지만 우리학교 우리학교가 33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 학번이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우리 동기들이 되기를 바란다. 06학번 동기들의 이름을 빌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과밤낮을 무지개 꿈

07학번 김소은 동문



학번 소개 글을 써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떤 이야기로 우리 학번을 소개할까?’ 생각하다 보니 스물에서 스물셋. 대학시절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제법 어르니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그때인데 지금 돌아보면 참 어렸고 너무 풋풋했던 그때. 옛된 모습이 가득한 저와 저의 동기들이 아른 아른 떠오릅니다. 대학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고 두근거리며 갔던 새내기 배움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10년 지기 친구들이 되어 서로의 응원군이자 조언자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특수교사로서 살아내는 것을 보면 시간은 참 빠르고 10년간 특수교사로서 자라온 과정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스물. 새터와 오티와 대면식으로 정신없는 삼월을 보내며 찾아오는 중간고사. 그리고 찾아오는 전공 선택의 시간. 경쟁과 하기 싫음을 참고 삼사월을 보내며 07동기들에겐 그 시기 참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스물하나. 장애해방 인간해방을 외치며 학교를 누볐던 일학년이 이제 이학년이 되고 이번 일학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새내기 배움터에 따라가기도 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닐 것 같던 친구와 전공이 갈리기도 하고, 위로는 임고 보는 선배님들을 아래로는 새내기를 챙기며 마음도 생각도 더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스물둘. 이제는 가까워지는 임용고시를 걱정하며 준비하며 실습을 떠났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생실습” 첫 교생의 설렘을 안고 다들 정장 한 벌씩 마련하느라 들떠하며 새 옷을 입고 간 그곳에서 저희는 어렵פות이 특수교사의 삶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스물셋. 어느덧 최고학년이 되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사년간 내가 무엇을 했나, 앞으로는 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간 교생실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부분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임캠실에서 동기들과 그 어느 학년보다 자주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한 해는 먼저 붙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 해는 아직 붙지 않은 친구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군대를 가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찾고 누군가는 특수교사가 되고.

동기들이 우스갯소리로 cc는 지나고 나면 다 술안주 거리라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땐 너무 눈물 나게 아팠던 연애도 치열했던 임용준비도 이젠 아련하고 풋풋했던 우리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난지 십년이 다 되어가는 저희 동기들은 처음 만났을 때 확고했던 개성 그대로 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강렬한 개성을 뽐으며 일곱 빛깔 꿈을 품고 일곱 빛깔 무지개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3년차를 지내며 우리학교를 나온 특수교사여서 이렇게 좋은 교수님과 선후배, 동기들, 그리고 동문회까지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오래 더 많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튼튼하고 멋진 공주대 특수교육과가 되길 응원합니다.~!!

2007.2.22 새내기 배움터 사진



2007년 첫 여름 엠티



07 졸업여행. 제주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8학번 최미란 동문

이번 축사를 부탁받고서 무슨 말을 써야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저장해뒀던 사진첩을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시절 동기들과 재잘거리며 웃고 떠들던 사진을 보니 잊고 있었던 추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일은 2008년 3월, 선배들과의 대면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우리 08학번 동기들은 벌써 피식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뉴스나 소문으로만 접했던 대학생활을 처음으로 마주했던 터라 우리들은 대면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을 한 채로 특문관 옥상에 모였는데 선배님들께서 준비하신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입생들은 모듬을 만들고 모듬이름과 구호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듬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는데 오도원군이 속했던 모듬이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토리토리!!"

깜깜한 밤,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옥상에 올려 퍼진 '토리토리!!'라는 구호가 왜 그렇게 웃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눈물까지 흘렸었습니다. 무서울까봐 겁부터 먹었던 대면식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참여했던 총MT와 대천, 마곡사, 무주 등 다양한 곳으로 떠났던 동기MT 그리고 항상 멋진 경기를 보며 소리를 질렀던 사대체육대회, 수화공연과 점자 짚기를 했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 매일 밤 특문관에서 밤새며 공연을 준비했던 특교인 한마당, 그리고 교생실습, 반지전달식, 졸업여행 등등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가득하여 새삼 대학생활이 그리워집니다. 그 때는 기숙사에서 강의실에서 항상 마주하던 동기들과 이제는 연락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힘들다는 게 아쉽지만 자신들의 자리에서 사회의 새내기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추억과 함께 했던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9학번 회고록

09학번 김윤지 동문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동창회’라는 단어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현재 1학년이 16학번이라니, 우리 학번이랑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나네요.

2009년 2월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분홍색 티를 입고서 선배들에게 “영구 학번”, “빵꾸학번”이라 들으며 강당에서 2PM에 열광하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09년 3월 특관 지

하 1층에서 74명이 서로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 부서를 정하고 소모임에 들어

가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09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열심히 점자를 공부하고, 수화 노래를 외우고, 북과 장구를 치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09년 10월 특교인의 날 행사를 위해 선배들에게 혼도 나가며, 밤도 새면서 열심히 무대 준비를 했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10년 사대 체육대회 때, 09학번이 학생회가 되던 그 해 “희망



의 디딤돌 길이 되는 특교 23대 학생회” 라며 인사하고 열심히 발야구도 뛰어나고 목 터져라 응원도 했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11년 5월 아무 것도 모르던 3학년 09학번은 갑자기 전국 각지로 실습을 나가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했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11년 3학년 2학기, 과제도 많고 시험도 제일 많았던 학기에 동기들과 제일 열심히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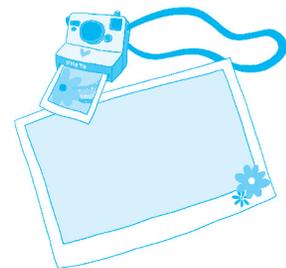
도 가고 술도 많이 마셨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2012년 4학년이 되면서 임용캠프에 참가하고, 특관의 각 실을 점령하면서 스터디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그 때가 기억나나요?



지나보니 참으로 떠오르는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동기들과 알차디 알찬 학교생활을 했기에 다 떠오르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에 특관에서 특수교육과 동기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자리에 특수교사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이라고 해서 빛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이 가지는 빛은 아주 은은하지만, 지나간 시간이 가지는 빛의 힘은 아주 오래 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영구 빵구 공구학번 ^^

마지막으로 33주년 축하 드립니다~





응답하라 2010

10학년 손다운 동문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에 반가운 동문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특수교육과 33주년 행사를 앞두고 10의 이야기를 담아 달라는 부탁에 참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추억해봅니다. 여러 장면들이 스쳐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공주대 특수교육과 10학년'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적어볼까 합니다.

2010년, 그 해는 3월 까지도 날이 추워 체육대회 당일도 눈을 맞으며 피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학하던 그 당시 캠퍼스에는 다른 학년들의 학번은 0*로 적혀지는 것과 달리 처음으로 1로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신기하게 여겨 주시고 많이 귀여워 해주셨습니다. 또 10은 입시 전형의 영향으로 동기들의 나이가 유난히도 다양하게 섞인 학번이었습니다. 고향도 나이도 성격도 다른 60여명의 우리가 '특교 일공'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사범대 해오름식에 올랐던 일을 시작으로 장애인인 날과, 특교인 한마당, 거의 모두가 함께 했던 첫 동기 엠티 등 여러 행사들을 함께 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2학년이 되자, 어제는 새내기였는데 오늘은 현내기가 되어 후배들을 만날 설렘 속에서 '학생회'를 꾸리게 됩니다. 10학생회는 지도교수님이신 임경원 교수님과 함께 크게 부서 개편을 하며, 특교에 여러 가지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현재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과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 앞장서서 일을 하는 '특대연'도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교육 실습을 앞두고 공주와 청주, 대전과 충주, 천안으로 교육봉사들을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고, 대부분의 10이 교생실습을 나갔기에 각자가 실습으로 바빴지만, 그 시기 이후에 다들 한층 성장 된 모습으로 함께 수업을 고민하며 예비교사로서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들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즈음엔 군 휴학과 개인 사정으로 얼굴이 안보이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고, 유아-초등-중등 특수로 나누어진 분과끼리 수업을 다니다 보니 서로 큰 과행사가 아니면 모두가 모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쉽던 찰나에 통영-거제 지역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오며 다시 한번 모여서 사진도 찍고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학교에 적응도 되었고, 금강도 정들어 가려는 즈음에 정신차려보니, 우리는 졸업학년 4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은 감사하게도 많은 선배 동문님들의 후원과 지원 덕분에

“임용캠프”라는 체제 속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과 독서실이 아예 없거나 열악한 다른 과들과 달리 우리는 넓고 큰 강의실에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은 따뜻하게 공부하며 ‘임캠실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꽃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보니 마냥 좋은 추억들일 수 없겠지만, 끼리끼리 모여 강의 듣고, 함께 문제를 풀고, 어느 지역으로 시험 볼까 고민하던 시간들 속에서 나름의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임용시험의 길을 택했던 친구들 중 꽤 많은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루었는데, 임캠실과 여러 학술도서들 그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힘써주신 동문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늘 애써주신 조교선생님들의 사랑이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특수교육과 전혀 다른 직업을 먼저 하고 있지만, 졸업할 즈음에 그리고 졸업한 후에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애써주신 많은 손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감사를 꼭 표하고 싶어 동문의 부탁을 굳이 마다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이 밤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 감사드립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재미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적기엔 너무나도 개인적인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다 담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공주를 제일 먼저 떠나겠다고 저는 여태 금강 옆에 남아서 벌써 백제문화제를 몇 번째 보는지..... 2010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모습들로 오늘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동문들에게 연락이나 해야겠다 다짐하며, 그 시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하려 합니다.

특수교육과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납시다!





응답하라 2010

10학년 손다운 동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선배님, 동기, 후배님!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임용에 합격하여 새내기 교사가 된 12학년 윤은지입니다. 작년까지 학부생 신분으로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그늘 아래 열심히 공부했었던 제가 이제는 졸업생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특수교사로 공주대학교 33주년 축사를 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님! 물심양면으로 미래의 특수교사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지원해주신 전공도서, 임용 캠프, 장학금, 특수교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덕분에 저 뿐만 아닌 많은 제 동기와 후배님들이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지금과 같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의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내리사랑을 본받아 '두손벙크'로 다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선배님! 따듯한 마음과 뛰어난 전문가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내기 교사가 되고 나서 현장에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런 선배님들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면 언제든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도움 주시는 것, 현장에서 아이들과 진정한 사랑으로 소통하며 특수교사로서 모범이 되어 주

시는 것,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 등 이렇게 소중한 선배님

들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의 후배들도 특수교육계에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문성과 따듯한 품으로 품어주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33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총동창회가 선·후배 간에 소중한 인연이 새롭게 맞닿을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선배님께 드리는 글-13학번

13학번 양수연 동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3주년을 기념하여 13학번 대표로 글을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하여 어느새 4학년 선배가 되었다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집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준비하던 체육대회, 특교인 한마당,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3학년 교생실습을 통해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고, 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런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후원해주시는 '두손뱅크' 장학 재단의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의 선진 특수교육을 견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허락해주신 기회를 통해 열심히 배워서 33년에 이은 공주대 특수교육과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든든한 선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교수님들과 조교선생님들 그리고 후배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사랑 합니다 !





선배님께 드리는 글-14학번

14학번 민지현 동문



14학번 동기들

스무 살 그리고 스물두 살

1학년 - 특수교육에 첫 발을 내딛으며..

2014년 3월 3일 저희 54명은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해오름식, 반지전달식, 장애인의 날, 특교인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며 14학번 동기, 선배, 조교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가까워졌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각장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특수교육이란 무엇인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 특수교육과 학생회를 하며..

2015년 저의 2학년은 '마음을 울리는 두드림, 소통하는 특교' 제28대 학생회의 부회장을 맡아 13명의 학생회와 함께하였습니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선배님이신 이하영 선생님과 장애에 원장님을 모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우리들의 눈'과 구족화가협회의 지원을 받아 에이블

특수교육과 제28대 학생회

아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동창회 및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 1학년 때는 몰랐던 다양한 총동창회와 선배님들의 지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많은 지원 덕분에 우리 재학생들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명의 특수교육과 선배, 동기, 후배들을 이끌어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주며 버틸 수 있었고 가장 뜻 깊었던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명의 동기와 함께 두손뱅크 글로벌 특수교육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선정이 되어 두손뱅크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 갔었습니다. 후쿠오카 교육대학교와 큐슈대학교에 방문하여 일본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에이블아트 기관인 '마루'에 가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에이블아트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손뱅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 견문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3학년 - 스무 살에서 스물 두 살로.

2016년 특수교육에 대한 꿈을 가진 채 특수교육이라는 분야에 첫 발을 내딛었던 스무 살 1학년은 어느새 교육실습을 나가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특수교육과 선배님들의 존재와 두손뱅크 선배님들의 지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저도 졸업을 한 뒤 후배들이 특수교육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상반기 기초사업 토크 콘서트



일본 에이블아트 '마루' 방문
두손뱅크 선배



하반기 기초사업 에이블아트 전시회
박정 작가님의 시연



선배님께 드리는 글-15학번

15학번 이견우 동문



안녕하세요! 특수교육과 15학번 이견우입니다. 먼저 공주대 특수교육과가 올해 33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합니다. 설립 후 33주년 지난, 지금의 특수교육과가 있기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교수님들, 학교를 떠난 뒤 교단에서 저희들을 지원해주시는 졸업생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걷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33주년 행사는 우리 구성원들을 모두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재학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생회를 맡으면서 도서지원, 장학금,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동문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축하의 인사와 같이 이렇게나마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공주대 특수교육과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50주년, 70주년을 졸업생이 되어 맞이하며 그때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선배님께 드리는 글-1685번

16학번 황소희 동문



대학에 입학한지 어느덧 1학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공주대 특수교육과 33주년의 소식을 들은 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983년 학과가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도 훌륭한 선배님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성에 학과의 한 학생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설립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구실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교사 양성에 기여할까? 라며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자신의 길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저희과가 유서 깊은 명분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대표를 맡으며 이렇게 좋은 학과에 다니고 있는 것이 매우 뿌듯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선배님들께서 닦아 놓으신 발판을 따라 한걸음씩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공주대 특수교육과 33주년 행사에 참석해주신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학과에 기여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수교육과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거름에서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제4장 특수교육과 연혁

특수교육과 연혁

본 특수교육과는 1982년 신설되어 2016년 현재 30회 176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9명의 전임교수와 현재 27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93년에 초등과정신설과 96년에 유아과정신설, 99년 치료과정신설로 학과정원이 80명으로 운영되어 오다 2016년 현재는 정원감축을 통해 47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96년부터 특례입학을 시작하여 현재 11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최첨단의 시설 및 기자재와 각종 특성화사업으로 한국 특수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교수·학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사범대학 및 공주대학교의 중심학과로서의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다.

1982.10.5	문교부 대학령에 의거 졸업정원 30명, 입학정원 39명의 학과로 신설
1983.01.14	입시전형, 39명(남12, 여27)입학
1983.03	김영환 교수 부임
1984.03	2회 39명 입학
1984.02	조선덕 교수 부임(1981년 9월 1일 공주사대 전임강사 부임)
1985.03	황도순 교수 부임 3회 34명 입학
1985.09	김삼섭 교수 부임(1982년 3월 21일 공주사대 조교 부임)
1986.03	4회 32명 입학
1986.11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신설
1987.02	1회 35명 졸업
1987.03	5회 31명 입학
1988.02	2회 32명 졸업
1988.03	한성희 교수 부임 6회 30명 입학 (졸업정원제에서 입학정원제로 전환)

- 1989.02 3회 24명 졸업
- 1989.03 7회 40명 입학 (입학정원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 1990.02 4회 29명 졸업
- 1990.03 김영환 교수 한국 선진 학교장으로 진출
- 8회 40명 입학
- 1991.02 5회 28명 졸업
- 1991.03 9회 40명 입학
- 1991.09 백은희 교수 부임
- 1992.02 조선덕 교수 퇴임(2월 6일 퇴임)
- 6회 33명 졸업
- 1992.03 10회 40명 입학
- 1993.02 7회 33명 졸업
- 1993.03 11회 40명 입학
- 1994.02 8회 38명 졸업
- 1994.03 광승철 교수 부임
- 12회 40명 입학, 특수교육과 초등전공 신설
- 1995.02 9회 41명 졸업
- 1995.03 13회 40명 입학
- 1995.10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인가(10월 18일)/학부 20명 증원인가
- 1996.02 10회 40명 졸업
- 1996.03 14회 62명 입학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증원)
특수교육과 유아전공 신설, 장애인 특례입학 신설
- 1997.02 제11회 40명 졸업
- 1997.03 15회 신입생 62명 입학
- 1997.05 대용부속특수학교 지정운영(공주정명, 청주혜원, 대전혜광)
- 1997 교육부 지정 중등 특수교육교사 1정자격연수기관 확정
- 1997.09 전병운 교수 부임
- 1997.11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신설

- 1998.02 제12회 32명 졸업
- 1998.03 16회 신입생 68명 입학
- 1998.07-08 중등 특수교육교사 1정자격연수 개최
- 1998.11 특수교육대학원 인가
- 1999.03 조광순 교수 부임
특수교육대학원 1기 60명 입학
- 1999.03 특수교육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김용철 교수 취임
- 1999.03 특수교육대학원 초대 전공주임 황도순 교수 취임
- 1999.08 임상동작훈련 하계캠프
한·일 임상동작 훈련 월례회
- 1999.09 장애인 이해를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 1999.11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신설
- 2000.01 한·미·일 특수교육세미나 개최
- 2000.03 18회 신입생 88명 입학(80명정원+장애특례입학)
- 2000.06 한·미·일 국제 특수교육 학술대회 개최
- 2000.1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중등특수교육전공 명칭변경
- 2001.03 특수교육대학원 2대 대학원장 김삼섭 교수 취임
- 2001.09 특수교육연구소 중점지원연구소 선정
- 2003.09 특수교육과장 전병운 교수 취임
- 2003.03 특수교육대학원 3대 대학원장 홍재호 교수 취임
- 2004.03 일본 큐슈대학원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협정 체결
- 2004.09 특수교육과장 백은희 교수 취임
- 2005.03 특수교육대학원 4대 대학원장 곽승철 교수 취임
- 2005.08 조광순 교수 퇴임
- 2006.03 22회 신입생 68명 입학(60명 정원조정)
- 2006.09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 특수교육전문가인력양성사업팀 선정
- 2007.02 특수교육과장 황도순 교수 취임
- 2007.03 특수교육대학원 5대 대학원장 황도순 교수 취임

- 200.09 노진아 교수 부임
- 2009.02 특수교육과장 노진아 교수 취임
- 2009.03 특수교육대학원 6대 대학원장 한성희 교수 취임
임경원 교수 부임
- 2009.10 BK21 해외석학 초빙 국제 학술 워크샵 개최
- 2010.03 26회 신입생 56명 입학(50명 정원조정)
- 2010.06 특수교육대학원 7대 대학원장 전병운 교수 취임
- 2011.02 특수교육과장 임경원 교수 취임
- 2011.03 이미숙 교수 부임
- 2011.09 BK21 국제학술 워크샵 개최
- 2012.06 특수교육대학원 8대 대학원장 백은희 교수 취임(6/12)
- 2012.12 큐슈대학교 한·일 특수교육세미나 참석
- 2013.02 특수교육과장 박승철 교수 취임
- 2013.03 노진아 교수 연구년(미국), 임경원 교수 해외파견(일본)
- 2013.07 특수교육연구소장 김삼섭 교수 취임
- 2013.08 황도순 교수 명예퇴직
- 2013.11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 Plus 사업팀 선정
김삼섭 교수.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BK21 Plus 사업팀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김영환 전교수, 정민호 특수교육정책과장/ 2013.11.12)
- 2014.03 노진아, 임경원 교수 귀국/복귀(연구년,파견 수행완료)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상배 교수 부임
- 2014.09 최상배 교수 공주대학교 기획위원 임명
임경원 교수 교수회 평의원 임명
- 2014.09.19 한·일 학술세미나(나가사키국제대학 사회복지학부)
- 2014.10 큐슈대학교의 교류세미나(10월 31일-11월 1일)
- 2015.02 이미숙 교수 특수교육과장 취임(2월 1일)
특수교육과 29회 졸업식

- 김삼섭 교수 명예퇴임(BK사업팀장 및 연구소장 퇴임)
- 2015년 신입생 입학(50명 정원, 54명 입학-27일)
- 전병운 교수 특수교육연구소장 취임
- 이미숙 교수 부교수 승진(3월 1일자)
- 최상배 교수 특수교육대학원 주임교수 발령
- 곽승철 교수 BK21 Plus 사업팀장 취임
- 2015.03.06 김삼섭 교수 명예퇴임식(학과차원 특강 및 기념식 진행)
- 2015.09 한성희 교수 9대 특수교육대학원장 취임(9/1)
- 2015.09 백은희 교수 국내 연구년(9/1)
- 정선화 부교수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 임용(9/1)
- 2016.03 서효정 조교수 특수교육과(학습장애교육) 전임교원 임용(3/1)
- 32회 신입생 51명 입학(47명 정원)
- 2016.0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설(교원자격취득 필수이수)
- 2016.05.28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공주대학교)
- 2016.07.09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33주년 기념집

국내 최초 국립대 특수교육의 밑거름에서 한국과 세계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과로

제5장 두손뱅크 장학사업

두손뱅크 소개

우리 특수교육과는 예로부터 동문들 간의 정이 남달랐습니다. 범진이와 진영이의 백혈병 투병을 위해 온 동문이 힘을 모았었고, ‘두손회’라는 자조조직을 통해 동문들이 기금을 모아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개별 동문 혹은 학번이나 지역모임에서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2011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총동창회 재창립과 함께 ‘두손뱅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안정적인 동문기금을 바탕으로 학과의 발전과 학부생들의 의미 있는 학과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 학술부 전공 도서관 도서 기증, 임용고사 준비생을 위한 임용캠프 운영 및 수험서 지원, 각종 학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두손뱅크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300여명의 동문님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소중한 모금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손뱅크의 장학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사업에 추가하여 보다 그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를 더욱 늘렸고, 지도교수 추천 순수 장학금 지원 등 장학금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단순한 장학금 지급을 넘어 글로벌 특수교육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학부생들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등 오대양 육대주의 다양한 특수교육의 세계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특수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19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손뱅크 후원동문 명단 (2016년 6월 기준)

강석구(87)	김으뜸(07)	박지혜(08)	양영모(02)	이민주(09)	인은희(03)	정혜진(03)
강성구(00)	김을집(84)	박현지(09)	양인숙(06)	이상은(88)	임경원(90)	조남준(83)
강승모(03)	김정미(92)	박현우(00)	양주희(06)	이성국(03)	임곡미(01)	조동열(84)
강은정(97)	김정연(02)	박현지(08)	양채린(07)	이세호(03)	임문이(96)	조병현
강지영(99)	김종남(86)	방은(05)	여운준(00)	이소영(09)	임성호(07)	조은(03)
강혜은(96)	김종무(89)	배상열(03)	오민진(11)	이수민(10)	임승현(86)	조은애(04)
곽승철(교수)	김지은(92)	배은지(06)	오보람(04)	이숙희(92)	임연화(99)	조은주(02)
구본철(91)	김진기(84)	배정인(04)	오영석(89)	이영란(87)	임정순(04)	조현일(06)
권수미(04)	김진주(07)	백제순(99)	오은영(01)	이영삼(88)	임정윤(98)	좌승묵(03)

권우미(83)	김창주(06)	백중남(대학원)	우미경(08)	이우리(04)	임창옥(01)	주은화(00)
권희정(11)	김하늘(05)	백하영(02)	원해라(05)	이운기(88)	임해주(02)	지혜정(10)
금상철(03)	김한성	변상용(97)	유가영(05)	이유리(92)	장경남(89)	진수빈(04)
김가영(08)	김현구(01)	복현수(97)	유가영(12)	이유리(03)	장덕순(90)	최상배(89)
김건식(04)	김형민(02)	서나희(09)	유대근(96)	이윤민(92)	장미정(87)	최상아(03)
김경란(01)	김혜진(01)	서병국(84)	유명진(07)	이윤희(07)	장수정(08)	최세미(03)
김귀연(00)	남영준(88)	서연주(03)	유미선(87)	이은숙(94)	장윤정(07)	최세민(84)
김금숙(85)	남정은(99)	서영신(09)	유선아(06)	이은해(03)	장형근(05)	최연옥(92)
김나현(02)	노은정(01)	서효정(01)	유수희(02)	이인(07)	장혜선(02)	최월순(91)
김대권(99)	노진아(교수)	성영혜(01)	유승하(05)	이인혜()	장혜정(02)	최유나(02)
김미령(06)	류연광(00)	성지은(07)	유신혜(92)	이인호(08)	전경미(94)	최윤정(05)
김미선(05)	류인산(83)	손병문(05)	유정애(04)	이일지(08)	전금식(95)	최중훈(98)
김미연(91)	류채상(89)	손정범(03)	육은지(08)	이임덕(91)	전미소(99)	최준기(97)
김미준(08)	류지영(95)	송나나(03)	윤기준(06)	이장원(02)	전병운(교수)	최지선(06)
김민진	목정돈(91)	송미해(86)	윤란경(92)	이재수(03)	전서경(89)	최형석(05)
김새별(05)	문창현(02)	송민경(99)	윤복덕(91)	이점자(85)	전소용(02)	최화영(98)
김석순(92)	박계신(89)	송민주(09)	윤수미(09)	이정아(05)	전소희(01)	편도원(96)
김선미(87)	박관영(97)	송민철(03)	윤은지(12)	이정희(92)	전은옥(91)	하선인(86)
김선욱(04)	박미은(03)	송병문(83)	윤지수(12)	이주혜(05)	전주희(08)	하수진(08)
김성은(84)	박민희(01)	송성민(04)	윤진(89)	이주희(01)	정길자(01)	하정미(02)
김세미(05)	박민희(01)	송영란(01)	윤혜순(84)	이준우(89)	정명옥(83)	한송희(83)
김세희(03)	박봄나래(03)	송영철(02)	윤호경(98)	이지연(03)	정민호(89)	한정미(10)
김소은(07)	박선미(04)	송은지(07)	이규만(90)	이지혜(03)	정민음(06)	한정원(02)
김소이(01)	박선영(03)	송정현(05)	이나나(01)	이하림(01)	정봄(05)	한정은(89)
김숙경(05)	박성주(02)	신현수(10)	이동현(95)	이해수(87)	정상필(96)	허숙경(83)
김순영(90)	박소연(06)	신현주(01)	이래화(04)	이현호(03)	정새로미(03)	허은순(92)
김승래(83)	박영식(86)	심말옥(92)	이만섭(07)	이현길(00)	정선화(교수)	현규영(06)
김영은(03)	박윤희(05)	심성강(99)	이명희(99)	이현정(97)	정승욱(84)	홍보람(06)
김영지(06)	박은미(99)	심혜령(11)	이미숙(93)	이현주(09)	정유리(06)	홍성희(84)
김영채(00)	박은송(85)	안미선(07)	이미숙(교수)	이혜경(96)	정지연(91)	홍세연(91)
김영철(88)	박준영(06)	안영수(99)	이미영(85)	이혜진(06)	정지윤(06)	홍영기(07)
김영현(03)	박지숙(04)	안윤아(08)	이미자(87)	이효성(90)	정진주(03)	홍재영(89)
김윤지(09)	박지은(04)	안재승(10)	이미지(11)	인규식(94)	정택수(07)	황수연(89)
						약정액
						3,590,000
						인원
						294

특수교육과 33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조직

추진위원장 조동열

집행위원장 임경원

행 사 진 행 이미숙, 서효정, 강인원, 전의정, 이건우

33년사 편찬 최상배, 권휘정

영상자료 제작 박상춘, 고영훈

학번별 회고담 주신 분

김승래(83) 김성은(84) 김종무(85) 하선인(86)

남영준(88) 양인숙(90) 구본철(91)

김정미(92) 최춘식(93) 김미영(94) 최준기(97)

안영수(99) 박민휘(01) 김영교(02)

박선미(04) 김상현(05) 윤기준(06) 김소은(07)

최미란(08) 김윤지(09) 손다은(10)

윤은지(12) 양수연(13) 민지현(14) 이건우(15)

황소희(16) 익명의 동문(89) 익명의 동문(03)